

5/14/17

설교 제목: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려면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히브리서 4:1-16

- (히 4:1)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 (히 4:2)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 (히 4:3)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 (히 4:4) 제칠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칠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 (히 4:5)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 (히 4:6)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 (히 4:7)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시 95:7
- (히 4:8)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 (히 4:9)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 (히 4:10)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절관주** 계 14:13, 창 2:2
- (히 4:11)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로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 (히 4:12)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절관주** 시 149:6

- (히 4:13)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 (히 4:14)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 (히 4:15)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 (히 4:16)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본문은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안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지라도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 것이니 두려워하라는 경고로 시작합니다.

- (히 4:1)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러므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한 죄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 받았으므로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안식은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약속한 천국 안식의 모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 년간 종살이 했던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서 죄의 종으로 사는 우리들을 가리킵니다.

애굽 바로 왕은 세상에서 권세를 잡고 왕 노릇하고 있는 사탄을 상징하며 바로 왕이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와 죽이려고 한 것은 사탄이 우리를 끝까지 물고 늘어져 죄의 종으로 삼아 죽이려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 바로 왕의 손에서 해방된 것은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고 사탄의 세력에서 해방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40 년간 지낸 광야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에 실패했습니다.

광야에 나와서도 과거 애굽에서 살았던 생활 방식 그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광야와 애굽의 환경은 전혀 다릅니다.

광야는 사막인지라 낮과 밤의 기온차도 무척 크고 물도 없고 고기도 없고 식물도 없습니다.

이런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애굽에서 살아 온 방법을 싹 다 버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애굽의 삶에 젖어 그 시절의 삶을 그리워하고 되돌아 보며 쫓아 살다가 멸망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 간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 믿는 자들은 다 변화 받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을 받은 우리 중에도 가나안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구원받지 못하여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 4:2)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히 4:3)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전해 받았으나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 같이 우리가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는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루어진 이 안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만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히 4:4) 제칠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칠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히 4:5)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히 4:6)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먼저 전해 받았으나 믿지 않아 순종치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 가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히 4:7)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히 4:8)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히 4:9)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가나안은 영원한 안식인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멸망받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식의 모형만을
누렸을 뿐이지 영원한 하나님의 참 안식을 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참 안식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장차 천국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히 4:10)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히 4:11)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로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고통스럽고 수고스러운 이 세상의 삶을 끝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 안식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복된 자들입니다.

저자는 우리에게 ‘그러므로 저 안식에 들어가기로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저 안식’이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안식 즉 구원을 받음으로써 이미 세상에서 받았고 장차
완전하게 받아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을 가리킵니다.

믿음이 노력없이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힘써 노력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를 잡은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를 집어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듭니다.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야할 뜻대만 바라보고 쫓아 가야만 모든 유혹들을 물리치고 믿음을 지켜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참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히 4:12)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 4:13)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남으로 숨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들이고 믿으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죄인인 우리가 자력으로 하기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까닭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히 4:14)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대제사장은 죄인들의 죄를 씻는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인간과 하나님 간의 교제를 회복시켜 주는 중보자입니다.

큰 대제사장이라고 한 것은 구약 시대 대 제사장들과 비교하여 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속죄 사역을 다 이루신 후 승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셔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인 구약의 대제사장들과 대비하여 큰 대제사장이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중보하고 있으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합니다.

'믿는 도리'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그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으며 그것을 믿는 자마다 죄가 사해져 의롭다 칭해져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들어 갈 수 있게 된다는 진리를 말합니다.

(히 4:15)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 4:16)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삶을 체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 겪게 되는 우리의 고통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동정하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동정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신지라 죄가 없으시므로 죄인인 우리를 위해 대신 죄값을 치르실 수 있는 자격이 되셔서 우리의 죄 값을 치러 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같은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는 죄인인지라 세상 사는 동안 셀 수 없이 많은 죄를 저지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라도 우리의 큰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회개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속죄의 피를 가지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셔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정,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에 우리가 주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살아 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살아 간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의를 입었으며 영원한 하나님의 참 안식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질 수 있으니 말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참 진리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도 구원이 있다, 저기에도 구원이 있다 하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심지어 기독교 내에서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WCC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WCC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WCC가 전 세계가 하나될 것을 주장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빈부
격차를 해소하고자 노력하는 등 좋은 일을 하는 단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WCC는 World Council of Church입니다.

교회는 인권을 말하고 빈부의 격차 해소를 말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이 하나될 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사람들이 세상과 구별되어 따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구원을 말하고 그 구원의 감격을 나누는 곳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우리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되십니다.

이 사실을 믿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 가는 복을 받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